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8년 12월 11일(화요일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1(화)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년 12월 10일(월요일)	담당부서	전력진흥과
담당과장	남경모 과장(044-203-5260)	담 당 자	하원석 사무관(044-203-5263)

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 개시

- 민·관 합동「전기요금 누진제 TF」1차 회의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성윤모)와 한전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**「전기요금 누진제 TF」**를 구성한 후

○ **12.11(화) 오전 첫 회의**를 개최하여 **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**했다. (회의개요 별첨)

□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**소비자·시민단체와 함께 전력·소비자 분야의 학계, 국책연구기관,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**들이 참여했다.

□ 정부와 한전은 금년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**지난 10월**부터 **국내 1만 가구**를 대상으로 **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,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**를 분석해 왔다.

<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개요 >

- **기간/대상** : '18.10~11월 중순 / 1만 가구 대상으로 면접조사
- **조사 내용** : 구성원수, 소득 등 가구별 특성 및 전기사용량

○ 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**기초자료 분석을 바탕**으로 '16.12월 개편(6단계 11.7배 → 3단계 3배)된 이후 2년간 운영된 **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**하고

○ **❶누진제 완화, ❷누진제 유지·보완은 물론, ❸누진제 폐지**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, **토론회·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** 등을 거쳐 **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**할 예정이다.

□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"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**7~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**, 한시조치가 아닌 **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**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, 그간 **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**했다고 하면서

○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**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**하겠다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(☎ 044-203-5260), 하원석 사무관(☎ 044-203 -52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「전기요금 누진제 TF」 개요

□ **TF 개요**

○ **(배경)** 現 누진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,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

○ **(구성)** 산업부, 한전, 에너지경제연구원, 소비자·시민단체, 전력·소비자·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

- (위원장) 민간 전문가중 호선, (간사) 산업부·한전

○ **(주요 활동)** ❶누진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, ❷주택용 전기사용 실태 분석·평가, ❸개선안 검토(누진제 완화, 폐지, 유지+보완 등), ❹국민여론 수렴(토론회·공청회 등), ❺누진제 최종대안 마련

○ **(활동기간)** '18.12월 ~ '19.상반기

□ **1차 회의 개최계획**

○ **일시 :** '18.12.11(화) 8:00~9:30

○ **장소 :** 서울 팔레스 호텔

○ **주요 논의사항**

- 위원장 선출 및 TF 향후 작업계획
- 현행 주택용 누진제 현황 및 평가
- 해외 누진제 사례 현황 및 시사점